

광주시 청년드림수당 사업 도마 위

민선6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광주청년드림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청년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 청년드림수당 사업의 행정혼선에 대해 청년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청년드림수당 사업은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40만원 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단체 "사업기간 확정 없이 홍보부터"

시 "시기 착오, 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게"

광주청년드림 사업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을 수상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면서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업시기가 사업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청년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게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광주시가 지난 4월 청년드림수당 참가자를 모집한다며 버스광고까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이 시기는 사업계획이나 운영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청년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광주시는 모집기간을 당초 4월18~5월15일에서 5월9~6월1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또 "청년수당을 집행할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채 청년 모집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라며 "다른 사업의 민간 홍보 대행사가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공직선거법이나 정부 예산 지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시기 확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사업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 왔고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은홍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40·50

남 20·30女 가장 많아

노인들이 보이스 피싱에 취약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대에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찰청이 내놓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결과(올해 1~4월)'에 따르면 4달 동안 모두 1만1196건, 11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인식도 함께 조사한 결과 과반 이상이 보이스 피싱의 주된 피해자는 60대 이상 여성이라고 인식(54%)하고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연령층은 40·50대 남성(31%)과 20·30대 여성(23.6%)으로 60대 이상 여성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40·50대 남성은 대출사기형, 20·30대 여성은 기관사칭형 피해가 집중됐다.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대금(고금리→저금리), 신용등급 향상, 보험료, 공중료 납부 등 대출에 필요하다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사칭대상은 캐피탈,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순으로 많았고 수법으로는 이용 중인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출대출'이 많았다. 피해자는 40·50대 남성이 37%로 가장 많았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검사(검찰) 사칭 피해사건이 1590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2130건 중 과반 이상(74.6%)을 차지했다.

피해는 20·30대 여성에게 집중(70%)돼 있고 피해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50%)하거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에게 직접 건네는 사례(42%)가 많았다.



떠내려 온 토사물에 사라진 도로

경기 연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도 강한 비가 내린 16일 오후 경기 용인 명지대학교사거리 인근 공사현장에서 유실된 토사물이 도로에 흘러내려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방치' 전남 5·18 역사현장 언제쯤 사적지 되나

5·18민주화운동 38주년, 전남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5·18 역사현장의 사적지 지정이 언제쯤 가시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현장 기념물은 전남 8개 시·군에 포지석 52곳, 안내관 21곳 등 모두 73곳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화순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목포 12곳, 나주 11곳, 해남·영암·함평 각 8곳, 강진 7곳, 무안 6곳 등이다.

전남도는 흩어져 있는 이들 역사현장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전남지역 5·18 현장은 광주와 달리 체계적 보존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데다 관리책임도 일원화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관

리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 5·18 현황분석과 기념사업, 사적지 지정 및 보존계획 등을 담은 '전남도 5·18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께 나올 예정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적지로 지정돼야 할 곳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73곳의 5·18역사현장의 분석을 통해 원형보존을 할지, 포지석만 세울지, 공원을 할지 등 다각적인 분류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형보존 및 항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도 관건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전남도는 사적지 지정이 시급한 곳은 용역 중간 단계에서 우선 심의를 통해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사적지로 지정될 곳에 대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원형보존과 항구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단계별, 연도별 사업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 5·18 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사적지 관리의 기본원칙, 도시사 책무, 교육감의 책무, 위원회 설치, 사적지 지정, 사적지 구조변경 협의, 관리계획의 수립, 순례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환 기자

인도네시아서 또 테러 경찰 1명 사망

인도네시아에서 또 자폭테러가 발생했다. 연쇄 일가족 테러가 발생한 지 이틀만이다.

16일 AP통신, AFP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리아우 주에서 미니밴이 경찰분부를 들이받고, 시무라이 칼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리아우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 4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운전자 1명은 도주했으나 체포됐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 한 사람이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경찰은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AFP는 이번 공격이 지난 13~14일 수라바야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가족 테러 충격 속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하면서도, 수라바야 지역 테러와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수라바야에서는 9세 소녀를 포함한 일가족 6명이 교회 3곳에서 연쇄 자폭테러를 벌여 최소 14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외프리르토 가족의 자폭테러가 있던 그날 밤 수라바야 인근의 시도아르조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제폭탄이 폭발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다음 날인 14일 오전 수라바야 경찰서 앞에서 2대의 오토바이가 폭발해 경찰 4명과 민간인 6명 등 모두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에테레도 일가족이 동원됐으며, 가족 구성원 5명 중 8세 소녀 1명만 살아남았다.

美, 하와이 화산폭발로 '적색경보' 발령

미국 하와이주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15일(현지시간)에도 폭발해 화산재와 연기를 뿜어내면서 미 지질조사국(USGS)이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3일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한지 12일이 경과했지만, 적색경보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화산은 3000m가 넘는 상공으로 화산재와 연기를 뿜어 올렸다. 이로 인해 화산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파할라 지역에서는 대기가 호흡하기에 유해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와이 현지언론 WSB 라디오 등의 보도에 따르면, USGS는 15일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로 인한 경보 단계를 기존 오렌지 색에서 적색으로 상향조정했다.

USGS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화산 정상부 폭발의 강도가 높아졌다면서, 화산재가 해발 1만피트(약 3000m)~1200피트(약 360m)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산으로부터 약 18마일(약 29km) 떨어진 파할라 지역에서까지 화산재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美 여객기서 승객들이 알몸 난동자 제압

미 시애틀에서 앵커리지로 가는 알래스카 항공의 한 여객기에서 14일 밤(현지시간) 알몸의 남성 한 명이 고함을 지르며 조종실을 향해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승객들에 의해 제압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디오 녹음 등 있던 승객 닥 스테플은 조종실을 향해 돌진하는 이 남성을 보고 처음에는 "일종의 테러 공격인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알몸 남성이 방향을 바꿔 제트 여객기의 후미 쪽으로 달려갈 때 그를 막아섰다. 또 다른 승객이 나서서 함께 그를 제압했다.

비행기는 45분후에 무사히 공항에 착륙했고 알몸의 남성은 앵커리지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0세의 스테플은 여름 관광 사업차 알래스카로 가고 있었다. 그는 15일 다시 생각해보니 그 사건은 좀 재미있는 면도 있었지만, 당시 하늘 위를 비행하고 있을 때에는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스테플은 그가 옷을 벗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15층 앞쪽에서 조종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야호!"를 외치며 신이 나는 듯 마구 고함을 지르며 달리고 있었다.

체중 84 kg의 거구인 스테플은 22살 가량의 그가 63 kg정도의 체격인 걸 보고 좌석 안전띠를 풀고 그의 앞을 막아섰고 그는 갑자기 압전 한 남동생 모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래, 하고 말했지만 나는 조종실을 향해 달려가는 그를 보고 9.11이 생각나서 견딜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걸 참고 있었다"고 스테플은 말했다. 그는 벗은 남자에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그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온순하게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얼굴을 때렸는데도 '야, 좋아' 하는 반응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나중에 승무원들이 몰려들어 제압한 뒤에도 알몸 남자는 착륙할 때까지 고함을 지르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부 7대 정책 중 하나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건강진단률 증가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감소
일반건강검진	22%p	18%p
생애건강검진	42%p	42%p

※본문에는 건강진단이 포함되거나, 미리 미리 건강 챙기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